4. 옷차림과 음식

衣服은 화려하거나 사치(奢侈)스럽게 해서는 안 되며 추위를 막을 뿐이면 되고, 飮食은 달거나 맛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해결할 뿐이면 된다. 사는 곳은 편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여 질병(疾病)에 걸리지 않을 뿐이면 된다.
잔치가 있을 때 크게 취하도록 마셔서는 안 되며, 술을 마셔서 몸에 술기운이 배어들면 그만 마시는 것이 좋다. 또 飮食을 알맞게 먹어야 하며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무 많이 먹어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한다. (『격몽요결』「지신장」)

그릇에 飮食이 담겨 있더라도 父母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먹지 말며, 비록 싫어하는 飮食이라도 주시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옷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父母님께서 주시면 반드시 입고, 衣服과 허리띠와 신발은 잃어버리지 말고 찢지 말아야 한다. (『사자소학』)

본문 해설

옷은 추위만 막으면 되고, 飮食은 배고픔만 면하면 된다는 본문의 주장에 찬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옷이나 飮食이라도 父母님이 주시면 무조건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도 동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술을 취하게 마시거나 배탈이 날 정도로 飮食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오늘날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율곡 先生과 『사자소학』의 말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생각 또한 크게 두 가지 오해에서 생기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오해는 이런 거예요. 율곡 先生의 이 말씀은 學問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先生이 말한 學問이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기 있지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奢侈(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히 올바르게 사는 것과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옛날에는 큰 부자를 제외하고는 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입을 것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겨울에 춥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모든 것이 풍족한 오늘날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이 옛날과 다르니 먹고 입는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입고 먹는 문제에 지나치게 욕심은 내다보면 더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지요. 自己의 마음과 행동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게을리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올바른 人間이 되는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율곡 先生이 우려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내용 가운데 오늘날에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 써 보세요.

의(衣)	
식(食)	
주(住)	

2. 앞의 내용 가운데 "음식은 달거나 맛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해결할 뿐이면 된다. 사는 곳은 편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을 뿐이면 된다."라는 생각에 대하여 내가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고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

동의 여부	
역사적 배경에 따른 이유	

3. 다음 『사자소학』의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시오.

사자소학의 말	나의 생각
음식이 있어도 부모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싫어하는 옷이라도 부모님이 주시면 입어야 한다.	

4. 앞의 『격몽요결』이나 『사자소학』을 쓸 조선시대와 오늘날의 역사적 배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생깁니다. 아래 표에 경제(산업)와 도덕의 관점에서 두 시대의 차이를 간단히 써 보세요.

구분	옛날	오늘날
경제(산업)		
도덕		

한자·한문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疾	病	居	處	奢	侈	飢	寒
병 질	병 병	있을 거	살 처	사치할 사	사치할 치	주릴 기	찰 한
몸의 온갖 병		사는 일, 사는 곳		분수에 넘치게 생활하는 것		굶주림과 추위	

2. 한자어의 쓰임을 보고 □안에 알맞은 음을 써 보자.

① 飮食(□□)을 잘못 먹으면 疾病(□□)에 걸리기 쉽다.

② 그 사람의 居住地(□주□)를 찾았더니 處女(□□)들만 살고 있었다.

③ 奢侈(□□)는 人間(□□)의 마음을 病(□)들게 만든다.

④ 옛날에는 가뭄과 洪水(홍□)로 飢寒(□□)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3. 다음의 한자가 들어가는 한글 낱말을 2개씩 찾아 (보기)처럼 써 보시오(국어사전 활용 가능).

(보기)	飢	기근
		기아

足		目		聲	

4. 다음 한자의 뜻을 써 보시오.

① 五倫 :

② 父子有親 :

③ 父母兄弟 :

5. 다음 풀이를 보고 아래 한문을 해석해 보세요.

生我者는 爲父母요, 我之所生이 爲子女요 父之父는 爲祖요 子之子는 爲孫이라.

• 풀이 : 생(生)-낳다/아(我)-나/자(者)-사람/위(爲)-되다/지(之)-'~의'를 뜻하는 어조사, 또는 '~가'를 뜻하는 어조사/소(所)-~것/조(祖)-할아버지/손(孫)-손자

관련된 이야기

며느릿감 시험

옛날 어떤 곳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집안 살림을 잘 꾸려갈 며느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自己 집에 시집오고 싶으면 自己가 정해준 집에서 쌀 한 말과 잡곡 한 말, 그리고 반찬이라고는 신김치 얼마와 간장 조금으로, 시중드는 할미와 한 달을 살면 며느리로 삼겠다고 온 고을에 소문을 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신붓감이 되려고 處女들이 몰려 왔으나 하나같이 한 달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 적은 식량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어? 부자가 이렇게 구두쇠인줄 몰랐네."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기가 막혀 自己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소문이 퍼져 더 이상 신붓감이 되려는 處女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건넛마을에 사는 가난한 집 아가씨가 찾아 왔어요.

그녀는 오자마자 팔뚝을 걷어 올리고 집안을 청소한 뒤, 우선 배가 고프다며 밥을 많이 지어 할멈과 맛있게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 할멈에게 동네에 나가 일감을 구해오게 하였어요. 바느질, 빨래, 물레질, 길쌈, 밭매기, 음식장만, 산에 가서 나무 해오기 등 뭐든지 일감을 찾아오게 하였어요. 그 일은 處女가 평소에 다 해 봤기 때문이에요.

할멈은 그 동네에 오랫동안 살아서 處女가 부탁한 일감을 쉽게 구해 왔어요. 더구나 솜씨가 좋아 동네 사람들이 너도나도 일감을 맡겼지요. 이렇게 해서 處女는 할멈과 함께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부자가 준 쌀과 잡곡보다 더 많은 곡식을 늘여놓았어요.

부자는 됐구나 싶어 기분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부지런하고 솜씨가 좋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處女를 며느리로 삼고 그 집안의 보배로 여겼답니다.

어떻습니까? 옛 조상들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깨끗하며 奢侈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생활태도를 좋게 보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奢侈스런 생활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관련 인성 가치	효도 책임 예절